

복음기도신문은 복음과 기도의 증인들의 믿음의 고백과 열방의 뉴스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해석해 성도를 일깨우고 열방의 중보기도자로 세우기 위해 격주로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 복음기도신문

한국어판 [www.gnpnews.org](http://www.gnpnews.org)  
 영어판 [english.gnpnews.org](http://english.gnpnews.org)  
 일어판 [japan.gnpnews.org](http://japan.gnpnews.org)  
 중어판 [china.gnpnews.org](http://china.gnpnews.org)

2010. 10. 3 창간

Gospel Prayer Newspaper

2019. 8. 11 ~ 2019. 8. 24 제209호



▶ 브라질 아마존의 아이들

제공: WMM

## 나의 기쁨이 선물이 되어 돌아간다

브라질 아마존의 소녀들이 저마다 인형을 품에 안고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은 걸까? 얼굴 가득한 함박웃음이 오히려 선물해준 이의 마음에 선물이 되어 돌아간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영원토록 변치 않는 기쁨의 선물을 주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시기 위

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죄인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다시 살리셨다. 이 일은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한 일이고, 우리를 구원한 예수를 영원히 기뻐하고 찬양할 이유가 됐다. 구원을 얻은 우리의 찬양은 다시 선물이 되어 하나님의 기쁨으로 돌아간다.

어떤 이는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선 삶의 자리가 찬양이 되어 하나님의 기쁨으로 돌아간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선물을 받은 이 자리에서 주님만을 기뻐한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에베소서 4:7) [GNPNEWS]

“여호와와 그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 대한민국을 패망으로 이끄는 동성애 강력 반대

전국 243개 기독교연합회, 성(性) 정책 시정 촉구

전국 243개 기독교연합회가 문재인 정부와 각 지자체가 추진 중인 ‘성(性) 관련 조례 등 각종 정책’의 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와 226개 시군구별 기독교연합회 회장단인 ‘전국 243개 광역시도군구연합회(이하 전국연합)’은 7월 30일 서울 양평동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예하성) 총회회관에서 임원회의를 열고 성 관련 정책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대책과 향후 활동을 논의했다.

이들은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가 각 지자체에 인권 기본조례 제·개정을 권고한 이후 최근 경기도에서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을 비롯, 부천과 부산, 작계는 서울 각 구청 등 기초·광역 자치단체를 막론하고 조례를 통한 성 정책의 입법 시도가 이뤄지고 있는 것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이 같은 행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전국연합은 ‘문재인 대통령님께 잘못된 동성애·성평등·젠더 정책의 시정을 강력히 청원합니다’라는 성명을 통해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성평등’ 정책의 완전한 폐

기 ▶동성애와 에이즈의 관련성을 은폐하려는 정책 수정 ▶잘못된 ‘차별금지’ 개념을 이용한 동성애 독재의 중단 등을 요구했다.

전국연합은 또 “객관적 사실, 공공의 이익, 미풍양속 등에 근거하여 위와 같은 청원을 드린다. 남자와 여자는 태어날 때 결정되는 것이기에, 본인의 자유선택으로 바뀔 수 있다는 주장은 자연의 섭리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자녀를 낳으며 종족을 이어가는 것이 인류 본연의 마땅한 자세라고 믿는 기독교인으로서, 대한민국과 인류를 패망으로 이끄는 동성애는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GNPNEWS]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신명기 8:20)

**기도** | 동성애 문제에 대한 외침을 여호와와 그의 소리인줄 알고 이 정부가 청종하게 하시고,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회개하여 구원을 얻게 하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84)

## “고3 신을 섬기고 계십니까?”

누구나 기쁜 소식 즉, 복음을 듣기 원한다. 복음을 갈망하는 영혼들을 위해 다양한 믿음의 고백들을 가져다선교회에서 제작한 전도지에서 발췌, 소개한다. <편집자>

집에 고3이 계신가요? 고3 때문에 가족휴가도 반납하고, 고3 밥해 먹이느라 가족 모임 때도 엄마는 집에 남지 않았던가요? 고3이 진도할까 봐 TV 소리 낮추고, 좋아하는 반찬을 온 가족이 먹여주고, 출렁이는 성격에 온 가족이 전전긍긍하며, 고3이 평안해지기를, 그래서 세월이 가기만을 손꼽아 기다리지 않았던가요?

왜 당신은 당신의 자녀를 신으로

만들어 놓고 그 횡포에 떨었습니까? 이유는 오로지 당신의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함이었습니까. 좋은 대학 가세요? 좋은 취직자 리입니까. 취직해서요? 훌륭한 배우자 만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네. 결국 그것입니다. 언뜻 보면 자식을 위한 희생 같지만 자식은 당신의 분신이기에 결국 내 자아 만족을 위한 눈물겨운 노력입니다. 모두 그렇게 사는데 무엇이 문제란 말입니까?

맞습니다. 모두 똑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자신의 만족만을 위해

살아온 자아 숭배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사귀어 있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관심을 두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당신은 관심이 있습니까? 없다면 절망입니다. 죽음 후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당신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내릴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예



일러스트=김경선

수에게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자아 만족만을 위한 삶을 돌이켜 당신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당신의 주인으로 모신다면 하나님이 당신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시고 천국에서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GNPNEWS]

### \* 복음의소리 316전화

삶이 힘드십니까? 갈급한 마음으로 전화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난 전화는 삼가주세요. 신앙 상담전화 ☎ 1670-3160

복음기도총서1  
내가 죽는다  
뜯어주는  
전도편지  
100

“죽으면 모든 게 끝일까요?”  
“왜 그렇게 열심히 사십니까?”  
“이 정도 죄도 안 짓고 사는 사람 있나요?”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마음**

뜯어서 읽는 전도편지

값: 23,000원 (별책부록 포함)

\*별책부록의 전도편지 100장을 한 장씩 뜯어서 언제 어디서나 전도할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아진과 보아스 032-887-0235**  
[www.jakinnboaz.co.kr](http://www.jakinnboaz.co.kr)

복음기도 도서출판  
복음과기도미디어



# “변화하는 교육, 혁신적인 선교” 교육선교사, 한 자리에 모이다

제4회 교육선교사 국제 컨퍼런스, 캄보디아에서 폐막



▶ 제4회 교육선교사 국제 컨퍼런스 예배전경

믿음의 다음세대를 세우고자 하는 열방의 교육선교사들이 모이는 제4회 교육선교사 컨퍼런스가 캄보디아 소금과빛국제학교에서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열렸다.

‘변화하는 학교 혁신적인 선교’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한국의 헤브론원형학교와 L국의 G학교, 캄보디아의 소금과빛국제학교의 교육선교사와 미국, 필리핀 등 교육선교 관계자들이 참여해 그동안 순종해 온 교육과정과 철학 등에 대해 열린 발표를 통해 다양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나누며 공감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소금과빛국제학교의 박경희·구수진 선교사는 “너 자신을 위해 살지 말라(NON SIBI)라는 라틴어에 기원한 교육목표로 캄보디아 청소년(4학년~12학년)들을 통합·융합 교과교육과정과 노작활동을 통한 인성교육 등으로 배움과 삶을 연결시키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교육선교학교인 헤브론원형학교의 정다영 선교사는 “좋은 열매

인 학생을 얻기 위해서는 건강한 뿌리와 즐거운 올바른 교육철학과 교사가 필요하듯 예수님의 교육철학을 기반으로 역사적으로 검증된 현대교육의 아버지라 불리는 코메니우스 이론에 근거한 교육과정을 통해 열방을 섬길 다음세대 선교사를 양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L국의 A 선교사는 “주님의 지상 대명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에서 시작되는 것처럼 교육선교는 선교의 핵심가치”라며 “L국의 다음세대를 기독교세계관에 기초한 교재로 믿음의 세대를 세워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최경습 선교사(헤브론원형학교)는 “학교는 선교완성을 위한 탁월한 선교적 공동체”이며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하신 사람에게 의해 이뤄짐을 학교에서 경험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인태 선교사(헤브론원형학교)는 “헤브론원형학교는 진리를 반복하여 듣고 배워 진리에 대한 확신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증인을 세우는 것이 교육과정의 목표”라

며 “현재 4학년에 입학해 12학년 까지 복음의 진리를 수십 번에 걸쳐 반복해 들으며 진리 앞에 서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철주 선교사(소금과빛국제학교)는 “한국 선교사로 구성된 학교의 특성에 따라 학생들에게 한국어 가르쳐 한국의 대학진학을 통해 캄보디아와 열방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을 양육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8년에 설립된 이 학교는 5년 전 첫 졸업생을 배출한 이래, 매년 4~5명의 졸업생들 24명 모두 한국의 대학에 진학했다.

캄보디아 소금과빛국제학교 졸업생으로 현재 한국 한양대 3학년에 재학 중인 톤 릿 시유이 자매는 “처음에는 언어와 문화가 다른 한국 선생님들의 교육을 이해하는데 어려웠지만 졸업할 무렵,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통해 알게 된 성경 말씀의 진리를 내 삶에 적용하는 단계에까지 이르게 됐다.”며 “한국에서 학교를 졸업한 이후, 국제기구에서 일하며 캄보디아를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회 주강사로 참여한 박도규 목사(안산 부암교회)는 “아브라함의 순종”이라는 주제로 “아브라함이 깊은 갈등과 고뇌의 시간을 거쳐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순종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삭이 스스로 결박을 묶었던 것처럼 그렇게 순종해온 교육선교사들을 주님이 위로하시고 격려하실 것”이라며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말고 순종해 달라고 요청했다.

[GNPNEWS]

## 중국, 종교자유 지지한다면서 교회 협박해 예배당 기증 강요

중국 허난(河南)성 정부가 교회의 예배당 기증을 강요, 협박하고 있으며, 6월 한 달만 해도 환찬(樂川)현 소재의 예배당 11곳을 탈취 당했다고 중국 종교자유 전문매체 비터윈터가 7월 30일 보도했다.

공산당은 종교 탄압 사업의 일환으로 교회를 기증하도록 강요하고 있으며 신자들은 자신들의 기금으로 세워진 교회 건물을 철거 위협에서 구하기 위해 손쓸 방도도 없이 이에 응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정부는 신도들이 자발적으로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6월 4일 현(縣) 통일전선공작부와 민중종교사무국은 이미 폐쇄된 종교장소들에 대한 압수 가속화 방안을 논의한 후, 지역 종교 사무국이 발행한 ‘뤄양시의 종교 업무 표준화, 개선 및 강화 지도의

견’을 기반으로 기독교전국양회 측에 폐쇄된 집회소의 담당자들을 설득해 ‘양도 동의서’에 서명하도록 하는 임무를 부여했다. 이에 기독교전국양회 회원들은 신자들의 기금으로 설립된 장소는 하나님께 예배를 올리는 곳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종교 관련 정책의 합법성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공무원들은 기독교전국양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집회장소 책임자에게 접근해 양도 동의서에 서명하도록 했다.

정부 공무원들은 사자묘(獅子廟) 마을 교회의 목회 직원에게 8만 5000 위안(약 1500만 원)을 받고 건물을 넘기든지, 7일 안에 교회 건물을 허물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며 위협했다. 신자들에 따르면 이 교회의 추정 가치는 약 70만 위안(약 1억 2000만 원)에 달하

다. 공무원들은 또 교회 철거에 방해가 되는 인물을 모두 처벌하겠다고 위협하면서 이러한 조치가 중앙 정부의 ‘폭력 조직 소탕 및 유해 세력 제거’ 사업의 일환이라 주장했다. 결국 교회 책임자는 교회 건물을 지키고자 실제 가치에 비해 10배 적은 돈을 받고 강제로 양도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신자들은 “정부가 너무나 불합리한 행동을 하고 있다. 이들이 강제로 교회를 빼앗아가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며 “국가가 종교 자유를 지지한다는 말은 다 거짓이다.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믿겠는가?”라며 정부를 향한 불신을 토로했다.

[GNPNEWS]

## 오늘의 열방 다이제스트 (7.22 ~ 8.3)

복음기도신문은 긴급한 열방의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열방의 교회, 다음세대, 창결하는 죄, 이주민 문제, 영적 전쟁 등의 관점에서 전세계 언론과 통신원들을 통해 모아진 열방의 소식을 요약,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편집자>

### 美 루터교 측, 진화론 거부 결의안 통과

미국 루터교 미주리 시노드(LCMS)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지구를 창조하셨다.”는 신념을 확증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최근 보도했다. 또 “첫 번째 인류로서 아담의 창조는 ‘역사적 사건’이며, 우리는 진화론의 주장을 거부한다.”고 선언했다.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창조사건을 온 세상에 담대히 외치는 미국 루터교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 섭리와 주권을 믿지 못한 채, 인간의 이해 속에 하나님을 가두려는 어리석은 시도를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순전한 믿음을 주소서.

### 모스크바서 공정선거 촉구 시위... 1400명 체포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서 지난 27일(현지시간) 공정선거를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2주 연속 열린 가운데 참가자 약 3500명 중 1400명이 체포됐다고 AFP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시위는 9월 선거에 야권 인사들의 후보 등록을 ‘요건 미비’로 거부해 일어났다.

하나님, 자신의 권력에 대항하는 자들을 받아들일 수 없고, 이익을 포기할 수 없는 죄 된 생명은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러시아의 잠든 교회들을 깨워주십시오. 성도들이 다시 복음 앞에 서게 하시고, 존재를 직면한 뒤, 믿음으로 행동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 네덜란드, 작년 검은 돈 거래 사상 최고치

작년 한 해 네덜란드에서 신고 된 돈세탁, 테러 자금 지원 등 의심스러운 자금거래가 모두 약 5만 8000건, 금액은 95억 유로(12조 3500억 원 상당)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고 현지 언론이 25일 보도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이 없으면 무슨 일이든 저지룰 수 있는 비참한 생명임을 고백합니다. 생명 주신 주님으로 인해 눈앞에 이득을 담대히 포기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제자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 한국의 과도한 현금 복지 정책, 남미처럼 파탄에 이를 수 있어

경기도 안산시가 내년부터 대학생 2만여 명에게 등록금 절반을 지원하고, 전남도는 농민 24만 명에게 연 6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등 지난해 신설된 현금을 직접 뿌리는 복지가 489건(68%)이며 소요 예산이 430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과도한 현금 복지 정책은 남미나 남유럽 국가들처럼 파탄에 이르게 할 수 있다고 조선일보가 지난 31일 보도했다.

당장 현금을 받을 땐 좋지만 결국 생산 없는 포퓰리즘 정책은 나라의 파탄을 가져오게 되는 것을 남미와 남유럽 국가를 보고 깨닫는 지혜를 주소서. 사리사욕이 아닌 사랑과 겸손으로 나라를 섬기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소서. [GNPNEWS]

## 느헤미야52기도 참여교회 및 단체

2019년 8월 12일 ~ 8월 24일

**8월 12일 ~ 8월 17일** ▶서울 광진 / 빛과소금교회(권\*\*)010-7754-1726, 8.12(10~22시) ▶경남 창원 / 진리의빛교회(김\*\*)010-9218-6023, 8.12, 14~17(10~12시) ▶경남 양산 / 양산교회(전\*\*)010-4501-0059, 8.13(11~13시) ▶경기 수원 / 주님의교회(조\*\*)010-5417-9933, 8.14(09~17시) ▶경남 진주 / 예수로교회(윤\*\*)010-7925-6004, 8.16(08~19시) ▶강원 원주 / 남원주성결교회(강\*\*)010-8271-0133, 8.16(10~18시) ▶경기 김포 / 꿈꾸는(구 김포전원)교회(강\*\*)010-4128-0448, 8.16(20~22시) ▶경북 울릉 / 동산감리교회(조\*\*)010-2639-8795, 8.16(10시)~17(10시) ▶서울 광진 / 한국중앙교회(송\*\*)010-6779-4120, 8.16(16시)~17(16시) ▶경북 의성 / 삼성초대교회(김\*\*)010-8528-3217, 8.17(06~12시) ▶경남 김해 / 진영소망교회(김\*\*)010-4567-8775, 그외 6교회 진행중.

**8월 19일 ~ 8월 24일** ▶서울 서대문 / 은현교회(정\*\*)010-3387-1817, ▶경기 부천 / 산돌교회(박\*\*)010-9527-2468, ▶강원 춘천 / 샘물교회(이\*\*)010-8856-7726, ▶전남 신안 / 열방선교센터(강\*\*)010-7364-9982, 8.7(06시)~8(06시) ▶서울 서초 / 평안교회(송\*\*)010-5791-9197, 8.19~20(10~17시) ▶강원 속초 / 속초동명교회(김\*\*)010-7423-4953, 8.19~23(19~23시) ▶광주 남구 / 십자가복음교회(김\*\*)010-9883-2347, 8.19~20,23~24(19~22시) ▶전남 신안 / 암태중부교회(강\*\*)010-5186-0091, 8.20~21(06~18시) ▶전북 남원 / 은혜의샘교회(김\*\*)010-3290-4316, 8.20~23(14~16시) ▶경기 시흥 / 은혜교회(위\*\*)010-4510-1070, 8.21(10시)~22(10시) ▶서울 광진 / 한국중앙교회(송\*\*)010-6779-4120, 그외 10교회 진행중.

\* 더 많은 정보는 기도24365홈페이지(www.prayer24365.org)를 참고주세요. 느헤미야52기도에 함께 하기를 원하는 분은 사전에 연락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느헤미야52기도 문의 ☎ 010-5424-4641)



# 시니어선교한국, 평균연령 70세... 늦깎이 선교사 양성

복음을 만나고 믿음의 삶을 결단 하면서 갖게 되는 마음은 선교적 삶에 대한 갈망이다. 선교를 준비 하는 사람들을 위한 다양한 선교 단체의 선교훈련과정을 소개한다. <편집자>

평균연령 70세, 인생의 후반전을 하나님의 지상명령인 선교에 헌신 한 사람들이 모였다. 이들을 시니어선교사라 부른다.

'시니어선교한국'은 한국교회의 전성기를 함께 걸어왔던 교회부흥의 주역들이 시니어들을 선교전문 인력으로 동원해 지상명령의 남은 과업을 이루어가고 있다. 2007년부터 시작된 시니어선교한국은 세계선교, 국내이주민선교, 다음세대 선교, 북한선교를 목표로 총체적 선교사역의 활로를 개척, 지원하고 있다.

최철희 선교사(시니어선교한국 대표)는 제1기 전반기 인생을 마무리하고 제2기 후반기 인생을 맞이 하는 세대를 시니어라고 명명하면서, 이들은 사회적으로도 산업화에 따른 치열한 경쟁 가운데 불가능에 도전하며, 어려움을 돌파하면서 숨 가쁘게 살아온 세대여서 젊은이들 못지않은 에너지와 열정이 남아 있어 마지막 추수 현장의 소중한 선교인력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서울·경기와 전라북도 지역에 10주 과정의 '시니어선교학

교'를 개설, 시니어 선교사들을 훈련하고 있다. 후반전의 삶과 선교, 타문화에 대한 이해, 북한 및 다음세대, 선교현장 탐방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3개월 정도의 '시니어선교학교' 과정을 통해 시니어들은 선교에 대한 이해를 높인 이후, 해외선교, 국내외국인선교, 단기재능기부, 보내는 선교 등 다양한 섬김으로 선교사역에 동참할 수 있다.

훈련과정에 참여했던 김상현 권사(서울·경기 9기 수료생, 100주년기념교회)는 "이미 다른 선교단체에서 훈련도 받았고 여러 해 동안 간사로도 섬겼기 때문에 또 무슨 훈련이 필요할까?" 생각했다며 "그러나 지인의 소개로 시니어선교한국 컨퍼런스에 참여했을 때, 새로운 도전을 받고 눈이 뜨였다."고 고백했다. 김 권사는 "평균 연령 70세인 이곳에서 오히려 내가 젊은이 취급을 받았다."면서 "다양한 국가에서 온 다양한 전문성을 가



▶ 시니어선교한국 대표 최철희 선교사



▶ 시니어선교학교 소모임 시간

진 시니어들의 사역에 대한 열정을 보았고 컨퍼런스의 2박 3일이 마음속에 긴 여운을 남겼다. 해외뿐 아니라 국내 여러 지방에서도 자신의 전문성을 가지고 영혼들을 섬기는 많은 사람을 보고 미련 없이 시니어선교학교에 등록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군가는 앞서가며 길을 닦는 역할을 하고, 후진들은 그 닦인 길을 보며 따라간다."며 "시니어선교학교와 만남을 갖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이제 훈련을 마치고 선교지에 나갈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고 밝혔다.

훈련과정에 대해 김석호 목사(전북시니어선교학교 4기 교장)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서는 은퇴란 없다."면서 "국내와

국외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갈급해 하는 영혼들을 위해 죽을 때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시니어가 되어야 한다."고 두려웠다.

또 전봉권 장로(전북시니어선교회 회장)는 "우리의 신앙이 차세대로 이어가게 하는 선교에 매우 시급함을 느낀다."며 "시니어선교는 이런 일에 함께 고민하고 힘을 모으는 곳이다. 인생의 후반기를 맞는 뜻에서 선교의 비전과 다양한 선교의 모델을 찾을 수 있다."며 선교학교를 추천했다.

시니어선교한국은 인생 후반기를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게 보내고 싶지만 방법을 몰라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이모작선교네트워크'를 통해 선교에 헌신하고자

하는 시니어들을 위한 상담과 멘토링을 하고 있다. 선교에 대한 비전을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며 구체적인 사역과 사역지로 연결을 돕고 있다.

또, 시니어선교한국은 이 땅에 와 있는 200만이 넘는 이주민들을 섬기기 위해 올 2월부터 이주민선교학교도 개설, 운영하고 있다. 이주노동자와 유학생뿐 아니라 다문화 가정과 난민과 탈북민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 나그네로 와 있는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을 섬기고 복음의 소식을 전할 주님의 발을 준비시키고 있다.

한편, 현업 은퇴 이후 시니어선교사로 인도에서 10여 년간 사역을 하고 돌아온 한 선교사는 "시니어선교사는 언어와 체력 등 많은 영역에서 한계가 있다."고 전제하며 "이들은 자신만의 사역보다 젊은 사역자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와 지원사역으로 섬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경험담을 나눴다.

실제 이 선교사는 선교현장에서 지역 선교사들과 매월 기도모임을 주관하며 연합할 수 있는 교제의 통로로서, 젊은 선교사들이 쉬어갈 수 있도록 사랑방 역할을 하며, 다음세대 선교사들이 선교사역을 배울 수 있도록 가디언 역할로 겸손하게 섬기기도 했다. 문의 ☎ 070-7656-4080 [GNPNEWS]

## 기독교 박해하는 BJP 통치 하에서도 인도 교회 말씀 붙들고 평안 누리

힌두교 민족주의 정당인 인도 인민당(Bharatiya Janata Party, 이하 BJP)이 지난 5월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나렌드라 모디 정권이 추가 5년을 더 집권하게 됐다. 하지만 인도 기독교인들은 이번 선거의 결과가 더 잔인한 박해를 의미한다고 우려했다.

6주 동안 6억 명 이상이 참여한 이번 선거로 정부에 대한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통제권이 부여됐으며, 모디의 강경 힌두 민족주의 정책을 지속하는 것이 보장된 것으로 보인다.

인도는 2014년 모디가 집권한 이후, 오픈도어에서 발표하는 기독교 박해순위가 28위에서 10위로 올라섰다. 모디의 집권 하에, 기독교인에 대한 힌두 민족주의 공격이 증가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신자들에게 더 적은 권리가 주어졌으며 정부는 기독교인과 같은 소수종교에 대한 잔인한 공격에 대해 눈을 감고 있다는 비난을 자주 받고 있다.

오픈도어에 따르면 2014년 기독교인을 상대로 일어난 폭력사건은

147건이었으나 2019년 1분기에만 2건의 살인사건을 포함해 216건의 폭력사건이 일어났다. 이는 오픈도어선교회의 현지 사역자들이 보고한 수치로, 밝혀지지 않은 더 많은 사건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BJP의 압승은 교회의 절대적 비극

미국 오픈도어선교회 대표 데이비드 커리는 이번 선거 결과는 "절대적 비극"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14년 이후 힌두 극단주의자들은 기독교와 이슬람교와 같은 소수종교에 대한 증오를 강하게 조장해 비극적 폭력사태의 증가를 가져 왔다."면서 "이 지역의 기독교인들은 이미 사회적 배척, 재산 파괴, 증오 발언, 종교 활동에 대한 비난의 형태로 괴롭힘과 차별을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이에 국제사회가 나서서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인도 교회의 지도자들은 주님의 통치를 믿고 소망을 잃지 않는 것으로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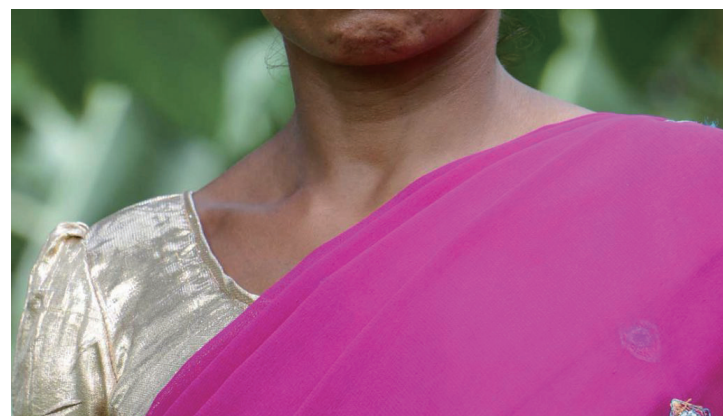
해졌다.

### 인도 교회, 말씀 붙들고 평안함 누리

한 교회 지도자는 오픈도어에 "우리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는 잠언 16장 33절 말씀과 '왕의 마음이 여호와와 손에 있음이 마치 붓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는 잠언 21장 1절 말씀을 믿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신자는 "나는 어떤 정당도 지지하지 않고, 로마서 8장 28절을 믿기에 마음에 평안이 있다."고 말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롬 8:28)

한 인도 교회 파트너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을 믿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를 도우실 것 또한 믿는다."며 "몇몇 기독교인들은 낙담하고 있지만 그들은 또한 이런 일이 일어날 것



▶ 인도의 한 기독교 여성(출처: opendoorsusa.org 캡처)

에 준비해왔다. 의회도 다른 어떤 정당도 기독교인들의 복지를 위해 일하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우리는 반대에 직면해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한 것을 마주할 준비를 한다."고 말했다.

한 교회를 이끄는 새뮤얼 목사도 "현재로서는 아무도 선거에서 BJP를 이길 수 없는 것 같다."며 "우리는 국제사회가 인도 정부와 결탁하기를 바라고 기도한다. 이번 임기에 인도법과 헌법 조항까지 바뀌

어 소수민족을 박해할 수 있는 도구가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세계 교회의 격려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도 교회를 기억하고 기도해주길 당부했다. 이 정부가 현명하게 나라를 이끌 수 있도록, 다양성이 공존하는 인도에서 화목하게 살 수 있도록, 기독교인들이 이 나라와 정권을 위해 충실하게 기도하고 또 기독교인들이 그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했다.

[GNPNEWS]



기획 | 창조 이야기 (20)

# 성경은 이미 3000년 전에 지구가 둥글다고 기록했다

본지는 창조론 전문가인 미국 켄트 호빈드 박사의 창조론 강의를 요약, 소개한다. 호빈드 박사의 강의는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흥미롭게 설명하며, 진화론이 거짓 믿음 체계임을 명쾌하게 밝히고 있다. <편집자>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 중 75%가 공립학교에 다닌 후 믿음을 거절하고 있다. 대부분 오래된 지구의 나이를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과 성경을 비교하면서 사실이 그러한지 대조해봐야 한다. 그래야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다.

창세기 1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궁창은 무엇일까? 어떤 사람은 흙일 것이라고 추정한다. 흙이 물과 물을 나누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흙이 아니다. 더 아래 20절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으라 하시고”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궁창은 공중이다. 그러니까 첫째 하늘은 바로 새가 날아다니는 곳이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고 있다. 둘째 하늘은 해와 달과 별이 있는 곳이다.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창 1:15) 셋째 하늘은 고린도후서 12장에 딱 한번만 기록되어 있다.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잠들었을 때다.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고후 12:2) 세 가지 하늘이 성경 안에 언급되어 있다.

창세기 1장 7절은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라고 한다. 그렇다면 새들이 나는 곳 위에 물이 있었다는 말인가? 시편 148편 4절은 이렇게

찬양한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마 우주공간 바깥쪽에 물이 있었을 것이다. 성경은 주님께서 많은 물들을 두셨다고 했기 때문이다. 어쩌면 우리가 보는 수많은 별들로 가득 찬 우주 전체가 물로 싸여 있을 수도 있다. 이 구절이 이 이론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구절이다.

베드로후서는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이라고 했다.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셨을 때에는 대기 위에 물이나 얼음 장막이 있었

던 게 분명하다. 하지만 지금은 없다. 홍수 때 다 쏟아져 내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한다.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It is he that sitteth upon the circle of the earth, KJV)”(사 40:22) 영어성경에는 ‘지구의 원위’라고 번역했다. 흥미롭다. 성경은 이미 3000년 전에 지구가 둥글다고 말했다. 기독교인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배운 적이 없다. 우리는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오늘날 우리가 숨 쉬는 대기에는 6개의 층이 있다. 대류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외기권, 이온층. 전에는 7번째 층이 있었는데 그것은 대기 위의 물 또는 얼음 층이었다. 그게 무엇이었던지는 우리는 모른다. 지금은 없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론을 만드는 것이다. 그것은 ‘뿔개이론’이라고 불린다. 물 또는 얼음이 대기 위에 있었을 것이라 이론이다. 나는 이것이 약 10~20인치(약 25~50cm)의 얼음이라고 믿고 있다. 엄청 차가운 얼음이 자기장에 의해 걸려있었을 것이다. 자석이 다른 자석 위

에 떠 있는 것을 마이너스 효과라고 한다. 이 마이너스 효과에 의한 자기장으로 지구 위에 얼음 장막이 떠 있을 수 있었을 것이다. 얼음이나 물은 자외선의 일부를 차단해주고 기압을 높여준다. 지금은 공기가 약 100마일(약 160km) 두께이지만 이것이 약 10~20마일(약 16~32km)로 압축되어 있었을 것이다. 더욱이 지표에서는 기압이 두 배가 된다.

실제로 예가 있다. 우주선이 대기를 뚫고 올라갈 때 뒤에 배기가스를 남긴다. 그것이 얼음구름을 형성하는데, 이 얼음구름이 북극이나 남극으로 떠내려가서 극지방 위의 약 50마일 상공에 떠 있다. 얼음구름이 떠 있으면서 떨어지지 않는다. 분명히 자기장에 걸려 있을 것이다.

요세푸스는 그의 책에 이렇게 썼다.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둘째 날에 크리스탈 궁창을 세상에 두르셨다고 믿었다.” 크리스탈 궁창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 아마도 아주 차가운 얼음이었을 것이다. <계속>

[GNPNEWS]



선교 통신

## 태국 청년세대가 올바른 성(性) 정체성을 갖게 되기를

10대에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기독교에서 선교사의 삶을 준비하다 태국 대학에 입학했다. 입학을 앞둔 어느 날 대학 병원에 가게 됐다. 같은 학과에 지원한 태국인 친구들이 꽤 있었다. 그중 한 친구가 내게 다가와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이름이 무엇인지, 학과가 무엇인지 등을 물으며 친해지자고 했다. 친구는 키도 크고 훤칠한 남자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여자들만 쓰는 태국어 어미인 ‘카’를 붙여서 말을 했다. 또 목소리도 높게 내려 애썼다. 그때까지만 해도 조금 이상하다고만 생각했다.

학기가 시작되고 그 친구를 다시 만났다. 친구는 머리를 길게 기르고 화장을 하고 나타났다. 그 다음 학기엔 치마교복을 입고 수업에 왔다. 태국인에게 있어 대학은 자유의 장이다. 부모님과 선생님의 보호와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숨겨왔던 자신의 성 정체성을 마음껏 표출할 수 있다.

태국의 캠퍼스를 걷다보면 처음에는 대학생의 교복에, 태국인의 친절함에 웃음짓지만 생소한 모습을 많이 보게 된다. 이곳은 동성에

자가 많다. 동성의 종류도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동성을 좋아하는 게이와 레즈비언 그리고 성전환수술을 한 트랜스젠더, 그 안에도 세부적 분류가 존재한다.

몸은 남자지만 자신의 영혼은 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태국에서는 ‘까터이’라고 부른다. 그들 중 남자 옷을 입고 마음만은 여자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하면, 머리를 기르고 치마를 입고 목소리도 여자처럼 내려고 하는 이들도 있다. 우리 학교에서도 이런 친구들을 각 학과마다 대표를 뽑아 미인대회를 열기도 한다. 태국에서는 이 모든 사람들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문화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쉽게 밀어낼 수 없다. 딱 봐도 남자인데도 여자화장실에 들어오면 그 누구도 뭐라 할 수 없다. 나가라는 말도, 싫어하는 티도 내서는 안 된다. 이들에게는 이것이 문화이기 때문이다. 때로는 기독교인들조차 이런 모습에 경각심을 느껴 이상하다 여기는 마음도 없는 경우가 있다.

태국 땅이 이렇게 된 데에는 오랜 세월이 걸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큰 이유는 깨어진 가정



▶ 태국에 있는 한 대학교 학생들의 모습. 특정 사실과 관련없음(출처: chula.ac.th 캡처)

있다고 생각한다. 태국의 성비 중 약 60~70%가 여자다. 남성이 많지 않은데, 그중에도 자신을 남성이라 인식하고 이성을 좋아하는 일반적인 남성은 더더욱 소수다.

그래서 외국인과의 결혼하고 싶어 하는 태국인 여성도 많이 있다. 적지 않은 태국 여성들이 일 때문에 잠시 태국에 머무는 외국인들과 함께 살며 아이까지 낳기도 한다. 그들은 외국인 남성이 다시 태국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약 없이 남겨지는 경우가 많다.

태국의 소수민족은 어린 나이에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다. 또 강제적으로 임

신하게 되어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도 꽤 있다. 이러한 이유들로 태국의 가정은 편부모 가정이거나, 엄마 혹은 아빠의 애인과 함께 사는 가정이거나, 조부모와 아이가 함께 사는 형태로 나뉜다.

아버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인식도 없는 많은 태국의 아이들은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다. 자신이 보고 자란 것이 어머니 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싶어 하기도 한다. 본래는 여성인 자신이 사실은 신의 실수로, 혹은 자신의 업보로 남성의 몸으로 잘못 태어났다고 믿는 사람들도 많다. 잘못된 인식이고, 타락한 문화이며, 하나님

앞에서 죄이지만 태국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한다. 이런 사실을 알려주는 것조차 쉽지 않다.

단순하게 동성애, 성 정체성의 혼란으로 그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이것은 태국인의 삶과 가정을 무너뜨린다. 그리고 다음세대가 복음으로 양육 받을 기회를 박탈시키는 문제라고 여겨진다. 태국의 아이들과 청년들은 이러한 배경으로 하나님이 주신 각 사람 고유의 아름다움과 완전한 사랑의 관계를 이해하기 어려워한다. 이들에게 참 아버지 되신 하나님, 남자와 여자를 지으사 온전한 사랑의 교제를 경험케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필요하다. 죄에 사로잡혀 자유를 주장하는 것이 아닌 진리와 복음 안에서 누리는 참 자유가 태국의 청년세대에게 임하기를 오늘도 기도한다. [GNPNEWS]

태국=최이레 선교사

\* 선교지 소식을 제보해 주세요.

긴급한 열방의 상황이나 숨겨져 있는 부흥의 소식을 알려주세요. 독자들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gnpnews@gnmedia.org, ☎ 010-6326-4641, 070-7417-0408



나눔&나눔 삶의 나눔으로 되새겨 보는 하나님의 은혜

# “시에라리온을 섬길 다음세대가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시에라리온의 부흥을 꿈꾸는 안드레 선교사



©복음기도신문

지난 어느 봄날, 긴급한 기도 제목이 들어왔다. 시에라리온에서 사역하던 한 선교사가 말라리아로 위급하다는 것이었다. 이 소식은 긴급 기도로 중보기도자들에게 전달됐다. 얼마 후 선교사는 병세가 조금 호전되어 3국에서 요양을 하고 치료를 위해 한국으로 입국했다. 몸이 아픈 와중에도 본지와와의 만남을 허락한 그는 약도, 의사의 처방도 아닌 후원자들의 중보기도로 살아났다고 고백했다. 아픔이 자신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한다는 안드레 선교사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 고생하셨습니다. 몸은 회복되셨나요?

“제가 말라리아에 걸려서 급하게 한국에 나오게 됐어요. 2월 말에 걸렸죠. 그때 저와 함께 사는 형제 이브라임(19)이 계속 밥을 해서 날랐어요. 저는 함께 사는 현지인 아이들과 동일한 식단으로 먹어요. 당근, 감자, 양파, 한국에서 가져간 밀치, 김. 그러다보니 영양실조에 걸리지 않는 게 이상하죠. 한번 병에 걸리면 몸이 축나요. 저는 이번에 세 번째 말라리아를 앓았는데, 이 병은 별다른 치료법이 없어 몸이 스스로 이겨내는 걸 기다려야 해요. 말라리아는 바이러스가 아니라 ‘충(蟲)’이에요. 말라리아는 면역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한번 걸리면 더 쉽게 걸리죠. 충이 몸 안에 돌아다니면서 필요한 양분을 다 먹어요. 그래서 말라리아는 몸이 급격하게 나빠져서 죽는 병이죠. 그 충을 죽이려고 먹는 약은 모든 병균을 죽이는 독한 약이라 간과 비장을 다 상하게 해요.”

- 정말 위험한 상황을 넘기셨군요.

“아프리카에선 모두가 그렇게 살아요. 10억 인구의 아프리카 대륙에서 일 년에 800만 명이 말라리아로 죽어요. 신약개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빨리 개발이 되지 않고 있어요. 크리스천 청년들이 취업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 영혼에게 정말 필요한 이런 일들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또 최근에는 허리가 많이 안 좋아서 지팡이를 짚고 다녔어요. 단기 팀을 받아야 할 때였는데 못 받을 상황이었죠. 그때도 약과 처방이 아닌 저를 기도로 후원해주시는

분들의 기도로 일어났어요. 그곳에서 살아가는 것은 기도의 능력이에요.”

## 질병이 일상이던 곳에서 정말 필요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 말라리아가 일상이던 그곳에 어떻게 가게 되셨나요?

“2002년에 단기선교로 처음 갔어요. 신학을 하지도 않았지만, 도움이 필요한 땅이라 생각해서 무작정 갔어요. 그 당시가 전쟁이 끝난 뒤라 너무 상황이 안 좋았어요. 4살 된 아이가 집에서 일을 해야 했고, 하루에 한 끼 먹으면 많이 먹는 것이었죠. 그런 사람들을 보며 마음이 정말 아팠어요.

몸은 말도 못하게 힘들었어요. 말라리아, 장티푸스... 3개월 만에 15kg이 빠질 정도로 너무 안 좋아져서, 1년을 예상하고 나간 단기선교를 4개월 만에 마쳐야 했어요. 돌아와서 2년 동안 교회에서 아프리카 선교팀도 만들고, 기도모임도 시작하고, 단기선교도 보내고, 이렇게 열심히 섬겼어요. 사실 4개월 만에 나올 땐 ‘다시는 여기 안 온다.’는 마음이었어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생활도 불편했어요. 전기도 없고 물도 없고. 사람들도 거짓말하고 도둑질하면서 ‘뭐 얻을 것 있을까?’하고 항상 외국인을 주시하니까요. 처음 그런 사람들을 겪으며 다시는 안가겠다고 했었죠.”

- 그런데 어떻게 다시 가게 되셨나요?

“시에라리온에서 찍은 사진들을 인화해서 보던 중, 제가 머물던 곳 근처의 유엔난민기구(UNHCR)에서 조성한 난민 캠프에서 찍은 사진을 보게 됐어요. 2만 명 넘게 사는 난민 텐트촌이었어요. 공항 활주로 근처에 있는 곳이라, 비행기에서 내리면 200~300명씩 몰려들



제공: 안드레 선교사

▶ 동네 무슬림 소녀들

어요. 외국인이 신기하기도 하고 뭔가 기대하기도 하겠죠. 몰려든 아이들을 위에서 찍은 사진을 보는데, 한 명도 신발을 안 신고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 슬리퍼가 한국 돈으로 300원 정도 했거든요. 200명 해봤자 6만 원인데. 그게 너무 속상했어요. 다 사줄 수는 있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니잖아요. 마음이 조금씩 변해갔어요. 결정적으로 2004년 말에 송구영신 예배 메시지를 통해 다시 한 번 선교사로 헌신했어요. 옥한흠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한 나그네 인생길을 가야한다.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이지 세상이 아니니까, 돈주머니 잘 생각하지 말고 살아가라.’고 하시는데, 그 메시지에서 제 자신도 선교지로 안 나가려고 발버둥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회개하고 나갈 것을 결단하고 3개월 만인 2005년 3월 9일, 시에라리온 땅을 밟았어요.”

##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한 나그네 인생길을 가야한다

- 주고 싶은 것이 많으셨겠어요. “사역을 하면서 항상 고민이 됐던 부분은 ‘빵이 우선인가, 복음이 우선인가.’였어요. 상황이 너무 좋지 못하니까 빵을 줘야 살 것이고, 살면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때도 있었죠. 결론적으로는 복음이 우선이에요. 제가 빵 없이도 살았으니까요. 복음이 없이는 빵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처음 갔을 때는 후원이 없었고, 10개월 뒤에 매달 친구 두 명이 보내 준 3만원으로 2년을 살았어요. 다른 선교사님께 얹혀살기도 하고, 현지인과 동일한 조건의 집에서 살다가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나오기도 했죠. 그러나 저를 부르신 주님이 주신 소명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다 몸이 아파 사역을 할 수 없게 됐을 때 미국으로 신학 공부를 하러 갈 기회가 있었어요. 공부를 마치고 주님은 제게 시에라리온으로 돌아갈 것을 말씀해주셨고 저는 기쁘게 순종했어요.”

- 시에라리온에서는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시에라리온 수도에서 7시간 떨어진 K마을에서 10대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어요. 국경인근지

역 도시인데 5만 명의 인구 중에 80%가 무슬림인 마을이에요. 교회가 37개가 있지만 제일 큰 교회의 인원은 200~300명 정도예요.

제 사역 대상은 가난한 사람이긴 하지만 제한을 두지는 않아요. 늘 열려 있어요. 아픈데 약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가져간 한국 약을 주는데요, 그런 도움을 받는 무슬림들 중에서 부유한 사람도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도 약을 받으러 많이 오지만 무조건 주지는 않아요. 저는 약을 줄 때 분명한 목적을 갖고 나눠요. 복음 전파, 약을 주면서 항상 기도해요. 교회에 나오라는 얘기는 안하지만, ‘오늘 나랑 기도하자. 나는 널 위해 항상 기도한다. 하나님이 너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말하며 기도하고 줘요. 이게 사실 무슬림 전도방법이에요. 목적은 있어야 하지만 급하게 다가가지는 않아요.”

- 그렇군요. 기도를 하면 거부반응은 없나요?

“네, 4~6개월 정도 약을 준 집은 제가 계란 사러가는 집 주인의 작은 엄마예요. 5명의 아내 중 둘째 부인인거죠. 부인들이 다 같이 모여 사는 그 집에 한번은 식사초대를 받아 갔는데 셋째 부인의 다리가 코끼리 다리만큼 부어 있었어요. 약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약으로 할 수 없다. 지금 너를 위해 기도해주겠다. 하나님께서 불드시고 치료해 주실 거다.’라고 말하며 함께 기도했어요.”

- 아이들과 함께 사시는 이야기를 좀 더 들려주세요.

“저는 산 중턱에 살아요. 저희 집에서 내려다보면 50가구가 보이는데 불을 밝힌 집이 하나도 없어요. 전기는 물론이고 발전기도 없는 상태죠. 저희 집만 발전기가 있어서 저녁에 잠깐 불을 밝혀요. 발전기도 기름으로 돌리니 때문에 하루 종일 쓸 수 없으니까요. 그곳은 정말 앞길이 보이지 않는 가난함이 가득한 곳이에요. 작년에는 6명이 저희 집에 왔었는데, 지금은 3명의 아이들과 살아요. 조니(19), 모하멧(22), 이브라임(19). 모두 남자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바로 옆집의 모시마(16)라는 여자아이도 양육하고 있어요. 시에라리온에서는 시골에서 도시로 아이를 공부시키러 보낼 때 참 대책 없이 보내

요. 자기 마을에 있다가 도시로 나온 사람한테 무턱대고 보내요. 사전에 논의도 없어요. 그렇게 올라온 아이들은 눈치밥 먹으면서 알아서 생존해야 해요. 부모가 생활비를 주는 것도 없어서, 자진해서 집안일 하고 밥을 안주면 못 먹어요. 이 아이들에게는 뭐가 되고 싶다는 미래가 없어요. 일단 먹고 살아야 하죠. 사기를 치든 도둑질을 하든 부자가 되든 좋지만 안 되면 만다는 생각이예요. 제가 10대 애들을 데리고 살게 된 이유는 아이가 성인이 되어 똑같이 반복되는 가난에 사는 게 안타까웠죠. 제발 저에게서 조금이나마 무언가를 배워가서 그걸 동기 삼아서 자립했으면 하는 바람에 아이들과 살게 됐어요.”



제공: 안드레 선교사

▶ 함께 사는 아이들의 공부하는 모습

- 아이들과 함께 사는 삶은 어떠신가요?

“쉽지는 않아요. 애들이 우리 집에 오는 조건은 딱 하나였어요. 거짓말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않는 것. 그런데 그걸 못해요. 심부름 보내면 그 돈으로 뭐 사먹고 가로채고 거짓말하죠. 여러 번 봐줘요. 그런데도 작년에는 도저히 안돼서 5명을 내보내기도 했어요.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인식의 전환인데, 그게 참 어려워요. 내가 조금만 더 잘하면 이 사람에게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당장 눈앞의 돈 때문에 사람을 속여요. 지금은 불편 하나를 얻으려고 속이지만, 5년이 지나면 핸드폰, 10년 뒤에는 더 큰 것을 위해 속이죠. 부자가 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시에라리온 부자들은 이렇게 부자가 됐어요. 저는 아이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시켜서 그 아이들이 나중에 이 나라 (6면에 계속)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반드시 두려야 할 은혜의 복음 (2)

# 이 땅에 영광을 채우시는 하나님

은혜의 강이 메마른 곳을 휩쓸고 지나가면서, 원래 물줄기 아래 있지는 않았지만 불어난 강물의 혜택을 본 곳을 진펄과 개벌이라고 한다(겔 47장). 범람했던 물이 원래 자리로 돌아가면 그곳은 중동의 퇴약벌에서 물기가 말라 죽은의 높이 되어 버린다.

복음의 맛을 보고 자극을 받지않고 온전히 참여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의 지식을 무기삼아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삶이 이와 같다. 응당 생수가 흐르는 은혜의 바다 안에 거해야 한다. 에스겔 성전 환상을 통해 주님이 알려주시고자 했던 내용은 저주받아 소망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다시 한 번 회복시키는 복음이 이스라엘을 관통하여 열방 모든 곳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이다. 그 복음의 상세한 내용이 로마서 1~11장에 구체적으로 적혀있다.

피조물의 소견으로 헤아릴 수조

차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찬양(롬 11:33~36)하는 바울은, 계시된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믿음만이 자신에게서 날마다 절망을 직면하는 신자가 의롭게 되는 유일한 길임을 담대히 고백한다(롬 1:17).

###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구원

병든 자아를 자기의 원래 모습으로 믿고 그 감옥 안에 갇혀 매순간을 자아추구하며 하나님을 반역할 수밖에 없는 자가 바로 '나' 아니었던가. 이렇듯 존재적으로 죄인 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 우리의 어둠함과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보이신 놀라운 구원의 복음은 세상의 모든 도전과 미혹 가운데서도 반드시 펼쳐지고야 말 것을 선언하는 정수가 바로 로마서에 담겨있다.

드러난 질서인 자연법칙을 깨닫

기 위해서도 수천 년의 역사가 필요한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가슴 안에서 흘러나온 그 사랑의 깊이를 누가 감히 완전하게 깨달을 수 있겠는가. 방법을 다 알고 이해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사실은 만물이 주께 돌아가면 부패한 모든 질서가 회복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영원한 영광을 받으신다는 점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말이다.

그분의 계획은 완벽하며 그 뜻은 완전하고 거스를 자가 없기에 우리는 역사(History)를 그분의 역사(He's story)로 믿는다. 이 사실에 대한 많은 도전이 역사 속에 있어왔다. 하나님을 본성적으로 거부하는 죄악의 암덩어리들이 세상을 다 장악해가는 것 같지만 주님은 그 일을 보며 웃으시고 하나님 수준의 대안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오히려 그 앞에 복종하고 옹호리라고 명령하신다(시 2:1~7). 여



일러스트=노주나

름 풀잎이 가을 찬바람에 온데간데없어지듯, 안개와 같이 사라지고 잊혀지는 게 인생이다. 그 시간 속에서 진리를 발견해야 참된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은 약속하신대로 반드시 자신의

영광을 이 땅에 가득 채우고야 말 것이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와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합 2:14) (2017년 6월) <계속> [GNPNEWS] 김용의 선교사 (순회선교사, LOG미션 대표)



1년 52주 연속, 연쇄, 초점집중 기도를 위한 기도정보 모음집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한

## 느헤미야 기도정보 Ver.8



1

▶ 1~6권 기도정보집은 특별한 개정이 없는 한 계속 사용

▶ 긴급기도정보 각 권 별책 전 6권

정가 74,000원, 세트가 66,000원 (총 12권)



**느헤미야52기도가 저희 부부를 살렸습니다!**

"느헤미야52기도 1권 복음의 영광에 대한 내용으로 만들어진 기도정보를 읽고 기도하다보면 내 옛자아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십자가 복음의 은혜 앞에서 회개하고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오직 다 이루신 주님만 믿음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복음과 느헤미야52기도가 우리 부부를 살렸습니다" \_국 000선교사 부부

구입문의  
Purchase

야긴과보아스 Jakin and Boaz

032-887-0235 www.jakinnboaz.co.kr

Interview <5면에 이어>

### "이 나라 책임지는 지도자 양육 소망"

를 정직과 소망으로 이끄는 정치지도자가 되길 바라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신이시고, 구원이시고, 그분이 아니면 나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요. 삶을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이 내 삶을 바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한 명을 위해 사역하고 있어요."

- 같이 살고 있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가르치나요?

"우리 아이들은 다 무슬림이에요. 그러나 새벽에 일어나 학교가기 전에 말씀보고 기도해요. 주에 한 번씩 성경공부도 해요. 아이들이 비록 무슬림이지만 성경공부에 대한 거부감도 별로 없어요. 이슬람에 대해 잘 모르는거죠. 그래서 더욱 변화되기 힘들어요. 그냥 자신이 필요한 상황에 맞출 뿐, 진심으로 믿지를 않아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것이죠. 같이 사는 모하메트 목사가 된다고 하는 거

예요. 그 이유는 하나, 돈을 많이 번다는 것이예요. 이 땅의 목회자들은 헌금을 속여서 보고하고 횡령하는 실정이에요. 진정 복음으로 선 교회가 없다고 할 정도예요. 그걸 말하는 거죠. 말씨름을 많이 해요. 진짜 한 명이라도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합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바라요.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낳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죠. 지금의 성도들은 누군가의 눈물의 기도와 성령의 인도하심 없으면 지금 현재 있을 수 없죠. 그렇듯이 제가 그들에게 그 한 명이 되고 싶어요. 도와주고 동역하고. 앞으로도 눈에 보이는 사역들은 할 마음이 없어요. 이 사람 몇 명으로 20년, 30년 뒤에 나라를 책임지는 지도자로 세우고 싶어요."

[GNPNEWS] H.M.



▶ 교회로 몰려드는 아이들(제공: 안드레 선교사)





# “난폭한 입술로 사람들을 비판하던 내가 새 생명 되었어요”

성도의 삶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악한 자들의 싸움이다. 일상의 삶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장에서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고백을 소개한다. <편집자>



일러스트=고은선

##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독사 같았던 내가...

나의 모든 삶의 기준과 척도가 주님이 아닌 나의 눈과 생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지 않지만 나의 기준으로 평가하고 비난했다.

겉으로 은혜롭고 배려심 많은 사람처럼 포장하고 있었지만 나의 속사람은 썩어서 악취가 났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밖에 못해? 저 권사님은 왜 말을 저렇게 해? 심지어 저 사람 미친 거 아니냐? 20여년의 운전경력이 남긴 건 난폭한 입술과 주변 운전자들을 비난하는 독사 같은 모습이었다. 그러나 말씀을 대할수록 주님 앞에 악독하고 부패한 내 존재를 보게 되었다.

그때 그런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 생명이 되었음을 붙들었다. 지금 난 십

자가로 사는 삶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스스로도 포기한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다.(서울 관악구 이예스터 자매)

## 내가 '에이씨'라고 했다고요?

어느 날 나만 모르고 다른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습관을 발견하게 됐다. 한 동료가 내가 습관처럼 '에이씨'라고 하는 말을 듣고 습관을 고치라고 말했다.

순간 내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오해를 받은 것 같아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냐며 부정했다.

잠시 후 다른 동료에게 물어봤다. 혹시 내가 그런 말을 하는 습관이 있냐고. 동료는 잘 모르겠다고 웃었다. 그러자 곧바로 내가 '에이씨'라고 하는 소리를 내 귀로 똑똑히 들었다. 선교사의 삶을 살

면서도 습관적으로 불평하는 내 존재를 보았다. 주위 동료들에게 내가 방금 그랬노라고 이야기하고는 십자가 앞에서 안 죽으려고 어정거리지 말자고 서로를 격려하며 웃었다. 창피했지만 감사했다.

나의 옛 생명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는 새롭게 주님과 하나가 된 부활 생명이다. 야훗!(충남 서산시 정한나 자매)

## 주의 이름으로 기쁘게 박해를 받을 것이다

4년 동안 전도를 하고 있지만 전도 현장은 여전히 익숙해지지 않는다. 복음을 전하면 돌아오는 반응들 때문이다. 거절당하고, 무시당하는 것이 익숙해질 만도 한데 여전히 두려울 때가 많다.

한번은 거절을 당하고 '언제까지 이래야 하는 걸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기도하는 중에 내가 세

상이 원하지 않는 것을 주려 하기엔 환영 받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들에게 필요한 것이 내게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면서 내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분명한 인식의 전환이 됐다. 이후 전도할 때 어떤 반응 앞에서든 전혀 어렵지 않게 됐다. 오히려 영혼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부여됐다. 주의 이름으로 기쁘게 박해 받을 준비를 하며 오늘도 집을 나선다.(제주도 김성옥 자매) [GNPNEWS]

\* 믿음의 글을 받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채택되신 분에게는 본지에서 마련한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gnpnews@gnmedia.org  
☎ 070-7417-0408



# “북한 지하교회에서 여전히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이 시대 가장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은 누구인가? 이 코너는 한반도의 부흥을 소망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가장 가까이에서 고통받는 이웃, 북한의 기독교인들과 주민들에 대한 다양한 이슈나 사건,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편집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각국의 종교박해 생존자들을 면담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최근 전했다. 백악관은 지난 7월 17일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행정부의 종교자유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기 위해 17개국 출신의 종교박해 생존자 27명을 만났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는 미국 국무부가 주최한 '종교자유 증진을 위한 장관급 회의'에서 증언한 탈북민 주일룡 씨도 참석했다. 주일룡 씨는 앞서 국무부에서 열린 행사에서 북한 정권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선전하지만 실제로는 극악무도한 고문이 자행되고 있다며,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극심하다고 증언했다. 종교박해 생존자 면담에는 샘 브라운백 국무부 국제종교자유 대사와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 등이 참석했다.

'종교자유 증진을 위한 장관급 회의'에 참석한 탈북민 주일룡 씨가 북한 내 종교 탄압 실태를 고발했다. 현재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주일룡 씨는 북

한의 친척들이 종교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잔혹하게 탄압을 당했다고 증언했다. 고모와 그 가족이 고모의 시아버지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모두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졌고, 주 씨의 사촌 가족은 성경의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모두 처형됐다. 12살 어린 나이에 북한을 떠난 주 씨는 자신의 할아버지도 정치범이었다고 말했다. 아버지가 9살 때 할아버지가 정치범 수용소에 잡혀 들어가셨는데, 한 순간에 정치범의 자식으로 전락해 버린 상처가 있었다.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하고 군 장교로 복무한 엘리트였던 할아버지가 친구들과의 가벼운 대화에

서 인권과 권력세습에 대해 이야기한 후, 수용소에 잡혀 들어가게 된 것이다. 주 씨는 자신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외국 라디오를 들어왔다고 말했다. 라디오를 통해 외부 세계 정보를 들으시고 꿈을 키워나가시며, 적어도 내 자녀들은 여기서 공부시키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셨다고 말을 이었다. 주 씨의 아버지는 네 번의 시도 끝에 먼저 탈북했고, 이어 1년 후 주 씨도 어머니와 누나와 탈북에 성공하게 된다. 2008년 10월, 북한을 떠나던 날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하다.

“저희 가족 다섯 명이 모두 함께 있게 돼서 정말 축복을 받은 일이



▶ 미국 백악관에서 북한의 종교박해를 겪었던 일을 증언하고 있는 탈북자 주일룡 씨(출처: 크리스천포스트 캡처)

죠. 그래서 더더욱 저희만 누리지 않고 전달을 하려고... 이 두 나라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분단의 상처를 치유할 사명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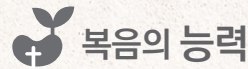
주씨는 이후 24일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의 외교관 및 시민 단체 지도자들을 초대한 자리에서 “복음을 함께 나눴다는 이유로 사촌 가족들이 모두 처형당했다.”면서 “북한에서 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생명을 내놓는 일과 같다.”고 말했다고 미주중앙일보가 29일 전했다.

그러나 지하교회에서는 여전히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고 있으며 정치 수용소에 수감된 이들은 찬양과 말씀을 공개적으로 나누지 못하지만 서로의 눈을 통해 묵시적으로 복음의 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침묵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모든 사람들이 마음껏 종교의 자유를 표현하고 살기를 희망한다.”며 “이를 위해서라도 북한의 비핵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북한에서의 처형은 중국에서 자행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백악관에는 세계 106개국에서 파견 나온 관리들과 30여 명의 외교관, 종교계 지도자 및 시민 권익 옹호 그룹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GNPNEWS]



## 복음의 삶이란?

성령은 예수님을 대신하시는 분이 아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모든 것을 지금 우리의 인격적인 체험 속에서 실체가 되게 하신다.

우리가 흉내 낼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이다. 어떤 사람의 생명 안에 성령이 임재하신다면 그는 자신의 인간적 본성을 장사 지내고 더 이상 자신을 생각하지 않는다. 성령께 이끌릴 때는 정욕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성령의 내재하심은 구속의 최고봉이다. 성령의 강권하심은 의지의 문제에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한다. 시적인 설교나 내 취향에 맞는 설교를 듣는 것은 기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 이유는 설교를 듣기 전과 여전히 똑같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복음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찢러 의지적 결단을 요구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등 어떠한 결정을 내리든지 다 의지적 결단으로부터 나온다.

[GNPNEWS]

<제자도(2012), 오스워드 챔버스>



뷰즈인 북스  
Views in Books

나의 하나님은 크다 <글래디스 에일워드>

# “작고 부족하기에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셨죠”



조건도 갖추지 못했다. 선교사로서 자격 미달인 영국의 가정부일 뿐이었다.

그러나 중국 선교를 향하여 자신을 부르신 것을 부인할 수도, 결코 포기할 수도 없었다. “하나님이 나를 중국으로 부르셨다.” 이 한 마디의 확실한 소명을 붙들고 중국으로 가기 위해서 다시 가정부 일을 하며 조금씩 모은 돈으로 마침내 중국행 기차표를 살 수 있었다. 짐을 줄이기 위해 옷을 있는 대로 꺼내고 런던에서 중국까지 가는데 필요한 여비와 양식들을 챙겨 드디어 기차에 올랐다.

### 무모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다

1932년 당시엔 무모하고 위험한 그의 믿음의 여정은 그때부터 시작된다. 기차를 타고 가는 길이 전쟁으로 막히게 되어 할 수 없이 기차에서 내려 추위를 견디며 걷고 또 걸었다. 그리고 러시아의 공산당에게 잡힐 위험도 있었다. 그러나 글래디스에게는 전쟁도, 추위도, 공산당에 대한 두려움도 부르심을 흔들거나 꺾을 수 없었다. 사

람들이 위험한 여행을 한다며 비난해도 그는 만나기로 한 여선교사를 찾기까지 순종한다.

죽음을 무릅 쓰고 갔으나 여선교사는 자신을 그다지 반기지 않았다. 하지만 낙심하지 않고 순종의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그녀의 모습은 오직 부르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전부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선교사로서의 조건에 대해 하나님이 확인하시는 한 가지는 바로 이것이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한 믿음과 순종이다.

글래디스는 중국에 가기까지 수많은 믿음의 도전들이 있었지만 굴하지 않는 믿음으로 결국 중국에 도착했다. 그때부터 그가 한 것은 없었다. 단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이었고 하나님이 열어 가시는 일에 순종할 뿐이었다.

정부에서 결정된 전족(纏足)폐지를 통해 중국 전역을 정부의 호위 아래 다닐 수 있게 되었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교도소의 싸움을 말리는 부탁을 들어주었다가 교도소를 교화했고 어린아이를 사고파는 인신

매매자들에게서 위협 당하고 있는 한 여자아이를 돕는 것이 계기가 되어 고아들의 엄마가 되었다. 이러한 헌신적인 삶을 통해 그 지역의 지도자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장면에선 울컥하며 눈물이 고였다.

### 선교사의 자격은 모든 상황에서 믿음의 순종을 드리는 것

하늘에서 폭탄이 떨어지며 중국에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죽음과 맞서는 글래디스의 용기는 그 땅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었다. 전쟁 속에 부모를 잃은 고아들이 소문을 듣고 모이기 시작해 200명이 넘는 아이들과 함께 사는 것은 하루하루가 믿음의 모험이었다. 전쟁 위험으로 아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 할 때, 흥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큰 강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다. 아이들과 함께 한 기도의 응답으로 누군가를 통해 기적적으로 배를 타고 강을 건널 수 있었다. 이 영화 같은 장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놀랍도록 경험하는

사건이었다.

책을 읽으며 다시 한 번 선교사의 삶이 그와 같은 믿음의 순종이어야 함을 기억하게 되었다. “작고 부족하기에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그의 고백이 내 영혼에 아멘 되었다. 나의 삶과 맡겨주신 자녀들의 삶을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용하시도록 주님께 올려드린다.

“하나님의 맨 처음 계획은 내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쩌면 남자였을 수 있겠죠. 많이 배우고 출신도 좋은 그런 남자요.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나는 모릅니다. 목숨을 잃었을 수도,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아래를 내려다보신 겁니다. 거기서 글래디스 에일워드라는 보잘 것 없는 소녀를 보셨죠.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저 순종했을 뿐입니다.” [GNPNEWS]

정준영 선교사

사람들은 흔히 선교사가 되려면 여러 가지 자격이나 조건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교 졸업장이 있어야 하고 파송단체의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확실한 후원단체가 있어야 하고 파송될 선교지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할 수 있다고 흔히 생각한다. 그러나 글래디스 에일워드는 이 중에 어느 하나의

## 일상에서 만난 하나님

# 가족들은 강아지 이름을 부르며 온 동네를 찾아다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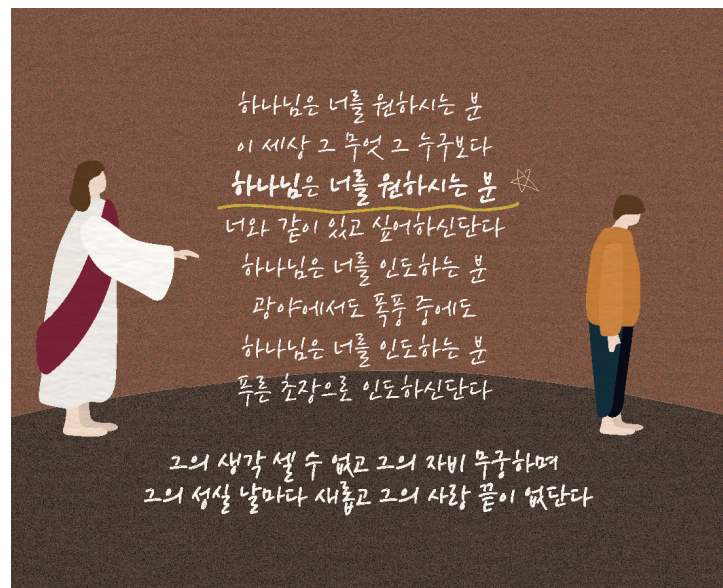
농사를 짓는 시골 남동생 집에 5개월 된 하얀 발바리 강아지가 왔습니다. 단단하게 자라라고 ‘강단이’라고 이름도 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강아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강아지 이름을 부르며 온 동네를 찾아다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은 더욱 애가 났습니다. 먼 곳까지 찾아다녔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득 새끼강아지가 이렇게 멀리까지 나올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막상 집 앞은 찾지 않았다는 것이 생각났습니다.

집 앞에 있는 밭부터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밭 옆을 지나 우거진 숲에 풀을 베어 길을 만들어가며 찾았습니다. 그런데 모기떼들이 너무 많아 더 이상 들어가기로 포기했습니다. 어두운 밤이 되면 오겠지 했지만 다음날 아침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 생명을 잃어버리다

다음날 다시 강아지를 찾아 나섰습니다. 비까지 내렸습니다. 우비를 입고 모기약을 뿌리고 냇으로 나무를 자르며 다시 숲으로 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강아지가 웅크리고 죽은 듯 누워



있었습니다. 다행히 살아있었습니다. 어제 두어 발자국만 앞으로 갔어도 찾았을 텐데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강아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강아지가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멧돼머리를 푹 끓은 물만 조금 받

아먹을 뿐이었습니다. 오후쯤 되자 결국 강아지가 죽고 말았습니다.

강아지를 찾아다녔던 일련의 해프닝을 통해 주님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강아지를 애타게 찾은 것과 는 비교도 안 되겠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열방을 찾으시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까지 죄인인 나를 찾으셔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 한 영혼을 찾기까지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한 영혼을 찾으시는 아버지를 내가 거부하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 여전히 죄 가운데서 죄 친화적인 삶을 살고 있다면 더욱 맨 아랫자리는 결국 내 자리였을 것입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사실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나, 먼지와 같은 존재를 하나님은 외면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했습니다. 한낱 미물인 강아지의 생명도 그렇게 소중히 여기며 찾았는데, 이들의 생명을 받은 나는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찬양합니다.

[GNPNEWS]

원종숙

### 구독신청 안내

구독부수는 최소 1명 이상에게 복음을 나누며 전하도록 2부, 20부, 100부 이상 신청받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받지 않습니다.

### 후원 안내

복음기도신문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제작·배포되고 있습니다. 동역하실 분들은 아래 후원계좌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651001-01-343666  
예금주: 복음과기도미디어

### 후원자 명단

2019. 7. 17 ~ 7. 31 (가나다 순)  
개인  
강주선 김경선 김애심 김유남 김진영 김혜신 박숙자 서진경 오대현 윤경석 이경형 이은주 이현희 장근혜 정금자 조경미 조명숙 조재순 차정규 홍기수 무명  
교회 및 단체  
강서침례교회 그루터기교회 김포꿈꾸는교회 김해제일교회 땅끝공인 목자교회 반석중앙교회 산돌교회 새순교회 시은교회 시흥교회 신한테크 열매교회 은혜신일교회 주안교회 주만교회 처음사랑교회 천보산기도원 헤브론원형학교캠프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사 제보·구독·헌금·동역 문의는 아래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070-7417-0408~10

E-mail: gnpnews@gnmedia.org (31952)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3길 8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spelpayernews

발행인 겸 편집인: 김강호, 인쇄인: 이병동(주)아이피디. 2010년 12월 1일 등록번호 충남, 다01355.(격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